

□ **관련부서(인구가족과) 답변서**

강릉시여성단체협의회는 1972년 9월 3일 8개 단체로 창립하였습니다. 그 후 1988년 4월, 4개 단체가 신규 가입하여 12개 단체가 되었고 1994년 4월, 강릉시·명주군 여성단체 통합으로 24개 단체가 가입한 적도 있었습니다. 강릉시여성단체협의회는 창립 후 51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으며, 현재는 11개 여성단체에 1,939명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.

시에서 지원하는 강릉시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「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(비영리법인·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),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(비영리법인·민간단체의 보조의 범위)」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으며, 협의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과 보조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단체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며, 강릉시여성단체협의회 “직원의 임명과 해임” 등은 강릉시여성단체협의회 규약에 따라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.

시는 강릉시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규정에 맞게 사용되도록 지속적인 관리·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,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※ 참고 사항

올해 2월, 제27대 회장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내부 분열이 생기면서 3번의 제소와 판결을 거쳤고 이와 관련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분열 상태로 9개월을 보냈습니다. 제30회 강릉시양성평등대회를 며칠 앞둔 지난 11월 6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강릉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단체 탈퇴서를 제출하였고, 강릉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이를 처리하였습니다. 이우임 회장은 앞으로 함께 활동할 단체의 영입을 추진 중이며 각 단체의 내부 절차를 거쳐 내년에는 더 많은 단체가 가입할 것이라고 하였으며, 1년여 남은 임기 동안 단체 규약 정비 등 내부적인 기틀을 다 잡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.